

마음을 연 교육

박 현 철 밀양대 농학과 교수

얼마 전 TV를 통해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한 프로그램을 시청한 적이 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폭행하고, 수업시간에 교실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각자 자기 할 일만을 하고 있는 교실의 모습은 우리가 지내왔던 과거의 모습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우리 나라의 교육을 걱정하고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교권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비롯하여 고등학교까지는 모두 대학을 가기 위한 발판으로서의 한 과정일 뿐이며, 선생님들은 예전의 모습과는 달리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인연에 불과하다.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선생님들 역시 교육에 대한 정성과 열의는 점차 식어가고 제자들과의 숭고한 인간관계마저 무너져 학생들을 단순한 교육의 소비자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다. 이 모든 현상들은 우리 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아직도 엘리트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대다수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일류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한 집념으로 인해 입시위주의 교육만을 고집한 데서 기인한다. 또한 학생들은 인간관계를 무시한 단순한 지식의 습득에만 치우쳐져 있는 교육정책에 지쳐가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런 현실 속에 익숙해진, 요즘 흔히 말하자면 신세대

또는 Net세대라고 불리는 우리 나라 학생들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믿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상대가 어렵거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려 대화는 커녕 인간관계 그 자체마저 무시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보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이나 취향에 따라 어떤 물질적 대상에 몰두하고 집착하게 되었으며, 많은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쾌락만을 추구하게 되었다.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들 청소년들에게 이룩해 주어야 할 새로운 정책과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더욱 시급한 것이다. 특히, 학교교육에 있어서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공감대가 사라지고 대화가 단절된다는 것은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할 때, 현재와 미래의 단절이며, 이것은 우리 역사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기성세대가, 특히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가 젊은 세대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성세대가 얼마나 우리에게 잘못된 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우린 또 그들의 모습을 보며 얼마

나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지내왔는가? 또한, 우리는 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인해 이렇게 되었으며, 우리 또한 그들에 대한 진정한 애정과 애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어느덧 기성세대가 되어버린 지금 우리가 우리의 기성세대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올바른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얼마나 가르치고 있는지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거울삼아 그들이 겪게 될 좌절과 기다림들을 지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에게 동지애를 보여줄 수 있으며, 더 나은 길을 모색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교육을 통해 그들이 구체적으로 그들의 의식 속에 꼭 담아야 할 가치관이나 인생관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물론, 학생들이 오랜 기간 동안의 상처로 인해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선뜻 우리를 찾아오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과 기성세대들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마음을 열어 진솔한 대화가 불가능하게 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결론을 쉽게 내리면 안 될 것이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고, 희망이 있다. 교육자는 학생들에게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 보이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종종,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재직하고 있는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 대부분이 교정에서나 거리에서 학생들을 만나면 농담이나 대화를 함께 하고 같이 어울려 장난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아마도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교수를 어떤 권위와 위상의 대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학생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주려는 것일 것이다. 진정한 삶의 질을 위해 학교가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은 공동체 생활을 통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삶에 대한 애정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아닐까?

또한, 진정한 교육자는 단순히 지식만을 제공하는 것

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손잡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음 속에 갇힌 사랑은 사제간의 사랑도 아니며, 사람간의 사랑도 아닐 것이다. 학생들에게 행동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나 역시 한때 오랫동안 비논리적이고 권위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호주에서의 유학시절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호주사람들의 생활모습을 보고서 바뀌게 되었다. 청바지와 가벼운 셔츠차림의 교수님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강의시간에는 누가 교수이고, 누가 학생인지 모를 정도의 뜨거운 토론 시간들, 누구나 교수들을 어려워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 나는 무척 당황스러웠다. 또한, 교수님들이 어지럽혀져 있는 실험실들을 손수 치우시며, 행여 내가 치우려 하면 역정을 내시고 '학생은 공부 목적이니 앉아서 하던 공부나 마저 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또 실수라도 하게 되면 실수를 다그치는 대신 오히려 따뜻한 격려로서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형식과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조금은 예의에 어긋나 보이기도 하는 그들의 자유로운 모습에 인간미와 나아가서 진정한 스승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후, 한국으로 돌아와 교단에서 서면서 호주 대학에서 만난 조금은 자유분방하며 자상하신 여러 교수님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학생들을 대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학생들의 반응은 생소해하고 어색해 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으나,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진실을 알아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똑같은 인간으로서 나를 대하게 되었다. 내 자신이 미처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그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가고 그들 역시 나에게 대한 신뢰감이 깊어져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과 마주 앉아 많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요즘 학생들이 개인주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개인주의'를 '이기주의'와 같은 개념

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인식에 한몫 거드는 것은 다름 아닌 중등교육과정의 도덕 교과서의 영향이 아닐까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 삶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희생과 봉사를 하는 삶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는 삶이다. 이렇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분류를 할 때 개인주의는 자신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는 사람들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개인주의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가 개인에게 있다'라는 생각이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렇다고 남에게 특별한 희생도 하지 않는 사람이 개인주의자 이니까. 엄밀하게 따져보면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 개인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주의는 가치 중립적인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단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개인주의자들이 많은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일지도 모를 것이다. 만약, 한 개인이 사사로운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면 공동체의 협력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반대로, 사사로운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한 개인이 다른 사람과의 계약이 자신에게 이익을 준다면 계약을 맺어 서로 협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상호간에 대등한 가운데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사회는 파편화된 개인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도덕 교과서에는 이런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에도 부정적인 시선을 보낸다.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는 '내 것과 네 것이 따로 없었다'고 말하며 오늘날 지나친 이해 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 사회는 자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남에게 나

뉘주는 사람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지 모른다. 특히,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교육의 현장에서는 더욱 더 필요할 것이다. 요즘 대학에서 졸업을 앞둔 학생이나 고학년 학생들은 많은 좌절과 갈등을 느끼고 있다. IMF환란 이후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와 함께 찾아온 취업난이 그들을 옥죄고 있고 부도덕한 정치가의 행태와 오염된 사회의 복잡한 이야기들이 그들의 정신세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그러기에 그들은 쓰러지기 쉽고, 타락과 환락에 빠져 쉽게 세상과 타협하려고 한다.

그런 학생들의 모습들을 보며 과연 우리 기성세대가 그들에게 미래의 희망이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우리 기성세대의 입장에서만 학생들을 보면 분명 그들의 모습은 이해되지 않으며 못마땅한 부분이 대부분일 것이다. 학생들 역시 우리 기성세대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역시 그들처럼 그들이 지나고 있는 그 시절들을 지나왔고, 우리 기성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며 지내왔다. 그리고 우리는 적지 않은 후회와 자만심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다수는 우리가 겪었던 후회의 시간들을 그들에게 똑같이 그대로 겪게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세월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학생들을 부정적으로 대해서는 그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어려울 것이다. 마음을 열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들의 이야기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먼저 마음을 열고 손을 잡는 것이 올바른 교육이라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가르치고 싶다. 필요한 것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단지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모르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단지 지식의 전달이나 습득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간의 수직관계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로서 삶의

지혜와 사랑의 나눔이 대학 안에서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나아가 우리가 마음을 열었던 그 학생들이 시간이 흘러 그들이 우리 나이만큼 나이가 들어 '미래' 들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들 또한 그들의 '미래' 들에게 먼저 마음을 열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소중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오늘날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박현철

동아대를 졸업하고 등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호주 국립 Curtin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대 밀양대 농학과 조교수로 재직중이며 국립 자연사 박물관 창녕유치위원회 자문교수를 지내고 있다. 논문으로는 「pythium arrhenomanes에 대한 벼의 감수성 품종 선발」 외 다수가 있다.